중역회의는 '어전회의'같은 쇼가 아니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사소한 일 같지만 직장생활에서 점심 식사는 매우 중요한 일과중의 하나다.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식사를 즐기는 것은 영양공급차원을 넘어서는 일이다. 식사시간을 잘 엔조이하고 나면 식후 업무의 효율도 오르게 마련이다.

사장에서 말단사원까지 식당에 도착한 순서대로 줄을 서서 기다린다. 그러면서 서로 뜸했던 동료들끼리 만나게 된다. 자연스레 안부와 정보를 나누기도 한다. 차례가 오면 식판과 수저 등을 들고 셀프서비스로 배식코너에서 음식을 받은 후 빈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한다. 그리고 누구나 식후 식판 등을 처리 장소로 마무리 짓는다. 모두 스스럼없이 식사시간을 매우 즐겁게 엔조이하고들 있는 것 같다. 먹는 곳까지 와서 계급화한 환경을 만든다면 그것은 정서적 공해다. 모처럼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이 격의없이 식사하며 마음을 나누는 귀한 기회를 갖는 게 얼마나 좋은가. 음식을 차려서 갖다 대령하기를 기다리는 특권계급이 없어서 마음이 시원하다. 그러면서도 자연스레 대부분의 중역끼리는 모여 앉아 식사하게 되어 있다. 아침 회의때 미진했던 것, 자료는 미완성이라도 협조 부서와 사전에 구두로 협의했으면 좋을 일들과 세상 돌아가는 얘기들을 부담 없이 식사를 즐기며 즐겁게 나눌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아닌가.

간과 장소와 격식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잘 소화하고 활용하여 스피드 경영을 이루어야 한다. 옆에 많은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한다. 뭐가 구린데가 있는 의사결정이나 경영전략 회의라면 보안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경영은 모든 임직원이 참여 못할 사안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정보시스템과 인터넷으로 거의 경영 안팎의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공유되어 좀 더 나은 시스템으로 솔루션을 도출하는 게 현대 경영이다. 그래서 칸막이도 없고 격의 없는 장소에서 간담회 같은 중역회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사람이 배가 차면 유해진다. 쓸데없이 첨예한 논쟁거리도 슬며시 극복되고 야박하지 않은 덕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기

쉽다고 한다. 그러니 식당의 중역회의는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한국 재벌 등 대기업의 회의는 어떤가? '어전회의'라 부르는 그대로 '황제'를 모신 경직적인 회의다. TV에서 보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보다 더 경직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면 과장일까?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어라"는 한국의 대표적 재벌 총수는 개혁과 변화를 주장하면서 세계화에 열을 올렸었다.

그러면서 수백 명의 임원들을 떼지어 모아 유럽에 가서 회의를 했다한다. 마치 그것이 세계화인 것처럼. 마침 주력 계열사의 반도체 수익이 좋았던 탓도 있었다. 또한 정권적 차원의 업적으로 둔갑시켜 홍보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벤트 같은 쇼가 필요했으리라. 그것에 부응한 코미디가 아닌가 하는 말도 있었다. 그 후 반도체 국제 가격은 곤두박질도 치고 또 오르락 거리면서 희비쌍곡선을 달리고 있다. 다만 이제 벽돌 찍어 회의를 하는데 쓰라는 이익금인지 반성해 볼일이다. 그 재벌총수가 느닷없이 주창하던 74제(오전7시 출근 오후4시 퇴근)의 현황은 요즘 어떤가? 오너 취향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 의당 어전회의까지 개최하면서 진출했을 자동차 계열사의 운명은 어떤가? 최근 그 그룹을 퇴임한 대표적 전문경영인이 자동차사업을 주장해서 했다고 누명을 씌우는 홍보전까지 사 내외로 하는 이유는…. 과연 그것으로 총수오너의 취향에 따른 독단과 잘못이 감추어질까?

애시당초부터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어라”는 잠꼬대에 “너나 바뀌어라”는 국민의 질타를 그가 듣고나 있는지 궁금하다.